

제 목	훗날 호랑이는 가족을, 사람은 이름을, 여행은 교훈을 남긴다.		
소속 대학	사회과학대학	소속 학과	경제학과
학 번	2022****	이 름	설*혜

훗날 호랑이는 가족을, 사람은 이름을, 여행은 교훈을 남긴다.

<여행에 관하여>

‘여행’을 떠올릴 때 우리는 각기 다른 것들을 머릿속에 그린다. 누군가에게는 끝없는 모험과 새로운 경험의 연속으로, 누군가에게는 일상에서 벗어난 휴식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저 지루한 관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현실 세계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압박을 겪는 현대 사회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떠올려지는 여행의 모습은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의 휴식을 통해 몸과 마음의 활력을 되찾는 것일 것이다. 이 때문일까 단지 일상에서 해방되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떠난 여행은 자칫 잘못하면 그저 ‘일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초점이 맞춰진 방문 정도의 의미를 남긴 채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다. 물론 휴식과 재충전의 동기로는 단지 낯선 곳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깨달은 여행이란 단순히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삶에 깊은 변화를 불러오는 순간들로 가득 찬 여정이라고 생각한다. 여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된다면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자신에게 소중한 가치와 내면에 대해 들여다보며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휴식과 재충전의 대명사 ‘여행’에도 문제점이 존재한다.>

요즘 여행의 추세는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SNS 플랫폼은 여행자에게 단순히 여행 목적지뿐만 아니라 맛집, 관광명소, 카페 등 여행을 계획하는 데 큰 영향을 주는 정보를 제공한다. 나는 주로 미디어에서 소개한 유명한 맛집, 카페, 관광명소들을 탐방하는 활동들로 일정을 구성하여 시간을 보내는 활동을 중심으로 여행의 본질에 대해 깨닫지 못한 채 여행에 대한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소셜미디어에 지나친 의존으로 인한 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이에 따른 사회적으로 획일화된 여행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획일화된 여행의 문제점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SNS를 통해 선전하는 맛집과 장소들은 본연의 맛과 멋을 강조하기보다는 외관의 화려함, 웅장함과 같은 보이는 것을 위주로 강조하며 홍보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특정 장소에 대한 본질을 깨닫게 하기보다는 상업적인 측면에서 많은 인기를 얻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장소를 방문하고, 비슷한 사진을 찍으며, 인증사진을 찍기 위해 또는 맛집을 방문하기 위해 긴 줄을 서거나 복잡한 장소를 방문하게 된다. 이를 다시 SNS에 올리는 방식으로 과시적

소비의 측면에서의 문제점으로 발전하곤 한다. 과시적 소비의 측면에서 획일화된 여행의 문제점은 여행의 본연의 가치와 의미를 잃게 하며, 단지 SNS에서 자신의 여행을 뽐내고 자랑하기 위한 행위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이는 긴 대기 시간과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하며 여행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내면의 성장과 문화적 교류와 같은 여행의 깊이와 풍요로움을 경험하기보다는 피상적인 즐거움만을 추구하게 된다. 나 또한 여행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간파하지 못한 채 여행을 간 경험이 있다. 지금부터 그 여행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20살의 부산 여행>

이 이야기는 여행의 가치를 깨닫기 전 경험한 20살의 부산 여행에 관한 것이다. 2021년 1월의 어느 날, 고등학교 시절 내내 붙어 다니던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제 막 성인이 되어 왠지 모를 자신감과 들뜬 마음을 활짝 피어오르게 하는 둘만의 여행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무작정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통근버스를 타고 우리는 함께 물류센터로 향하는 일상을 한 달간 반복했다. 당장 다음 달의 여행을 위한 아르바이트였기에 돈을 모으기 위해 단기로 일할 수 있는 물류센터로 출근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무모하기도, 어떻게 보면 참 당찬 행동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때는 오로지 여행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처럼 어떠한 상황도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돈을 모으는 것에 집중했다. 그래서 고된 하루에도 불구하고 힘든 줄도 모르고 매 순간을 열심히 달려가며 그 순간 느낀 모든 것들이 내게는 가치 있는 시간으로 느껴졌다. 마침내 여행까지 남은 일주일 앞두고, 나는 마지막으로 받은 일급을 손에 꼭 쥐었다. 생애 처음 온전히 나의 힘으로 여행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돈을 모으는 경험을 통해 단순히 여행 비용을 마련하는 것에서 나아가 인생에서의 책임감, 노력, 목표 달성과 같은 여러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

우리는 다음날부터 여행 일정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먼저 SNS에서 인기 있는 맛집과 카페, 여행지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끝내 1박 2일간 푸른 바다와 황금빛 해변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치로 매혹적인 도시 부산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우리는 KTX 대신 비행기를 타고 부산 여정을 떠나기로 했다. 사실 KTX를 이용하는 것이 예약해둔 숙소까지 더 편리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지만,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여행에 대한 설렘을 느끼고 싶었던 마음에 비행기를 타고 가기로 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점점 멀어지는 도시의 모습을 보며 마치 새로운 세상으로 떠나는 기분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하늘 높이 떠오르는 순간, 여행을 떠난다는 설렘이 경치와 어우러져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나는 그 순간을 사진으로 기록하며 SNS에 공유했고, 부러워하는 친구들의 반응은 내심 나의 어깨를 으쓱하게 했다. 1시간가량 비행을 마친 후 짐을 맡기기 위해 광안리에 있는 숙소로 향했다. 이때, 무거운 짐을 이끌고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KTX를 타고 부산역에서 출발했다면 택시를 타고 편하게 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숙소로 향하는 시간 내내 머릿속에 맴돌았다. 숙소에 도착하여 짐을 맡겨둔 후 미리 SNS를 통해 검색해 둔 유명 맛집 ‘톤쇼우’로 향했다. ‘톤쇼우’는 돈가스의 질 좋은 고기와 바삭한 식감으로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유명한 맛집 중 하나이다. 인기가 많은 맛집들을 방문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행위 일명 ‘웨이팅’을 예약하

는 것조차도 몇 초 만에 마감될 정도로 방문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알려져 있다. 우리는 4시간의 긴 기다림 끝에 비로소 톤쇼우의 돈가스를 맛볼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르지만, 톤쇼우의 돈가스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저 내가 알고 있던 ‘돈가스의 맛’이었다. 식사 후 벤치에 앉아 친구와 나는 집 앞에 자주 가던 돈가스집을 떠올렸다. “우리 동네에 있는 돈가스집, 그곳이 생각나는 맛이었어!”라고 말하며 아쉬운 마음을 내비쳤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식사에 대한 본질적인 만족감보다는 누구나 쉽게 언제든지 갈 수 없는 유명 맛집을 방문했다는 성취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단지 그곳을 방문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광안리 해변을 따라 걷다 보면 만날 수 있는 ‘더 베이 101’이라는 카페로 향했다. 이곳에서는 커피 한 잔과 함께 바다와 하늘이 하나로 어우러져 반짝이는 광안대교의 황홀함과 더불어 부산의 도시를 감상할 수 있다. 나는 더 베이 101을 방문한 사람들의 SNS의 여러 인증사진을 보고 부산 여행 중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SNS에서 본 그대로 더 베이 101에서의 경치는 정말 아름다웠다. 우리는 설 틈 없이 눈 앞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경치를 담아내기 위해 카메라 셔터를 눌러 댔다. 친구와 나는 일명 ‘인생 최고의 사진’을 만들어내기 위해 서로의 모습을 찍어주었다. 그러던 중 느린 편지라는 문구가 쓰인 빨간 우체통이 나의 눈길 사로잡았다. 느린 편지가 대체 무엇일까 하는 호기심에 그곳으로 향해 우체통 앞에 붙여진 안내문을 읽어보았다. 현재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쓰는 편지로 일반 우편과 다르게 1년 뒤에 발송되는 편지라니. 호기심에서 시작된 느린 편지에 관한 관심은 곧장 편지를 쓰게 되며 실행으로 옮겨졌다. 일기장에 나의 하루를 되돌아보며 적듯 오늘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를 적어 내려갔다. 당시에는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편지를 작성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현재에 내가 미래의 나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나에게 큰 힘을 줄 수 있는지, 그것이 때론 지친 삶의 환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좀 더 진중한 마음으로 편지를 써봤다면 어땠을까 후회가 남곤 한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친구와 오늘 하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내일이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부산에서 오늘의 일과가 추억으로 간직될 것이라는 생각에 아쉬움과 함께 “우리 열심히 모아온 돈을 부산 여행을 위해서 쓰지 않고 새 핸드폰을 샀으면 어땠을까?”, “좋은 노트북을 하나 장만하는 것은 어땠을까?” 하며 왠지 모를 허무한 감정을 느끼며 생각에 잠기다 잠에 들었고, 부산에서의 여행은 그렇게 끝이 났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웃음이 나올 만큼 즐거워할 수 있는 순수함을 의미하는 “청춘은 굴러가는 낙엽에도 웃는다”라는 말이 있다. 스무 살의 부산 여행은 어쩌면 “청춘은 굴러가는 낙엽에도 웃는다”라는 말의 뜻처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했다는 것만으로 즐거운 여행이 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여행의 또 다른 소중한 가치를 깨달은 지금의 나는 여행이란 시간과 같은 특정 요소에 매여져 있는 것이 아닌 그 속에서 발견하는 내면의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삶의 여정인 것이라고 과거의 나에게 꼭 말해주고 싶다. 지금의 내가 이렇게 여행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부터는 여행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던 여행을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22살의 부산 여행>

시간이 흘러 2024년 1월 22살이 된 나는 취업 준비와 학업에 열중하며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어느 때와 다른없는 평범한 어느 오후 2년 전 내가 나에게 쓴 느린 편지가 도착했다. 보내는 이와 받는 이를 적는 칸에 선명히 적힌 나의 이름을 본 순간 손끝에 닿는 종이의 감촉에 마치 시간을 여행하는 듯한 설렘이 밀려왔다. 편지에 내가 무엇을 적었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까맣게 잊고 있었기에 그 설렘은 더욱 커져만 갔고 그곳에는 과거의 부산 여행에 대해 적혀 있었다. 편지를 읽고 나는 그때로 돌아가 추억 속에 잠겼다. 여행을 위해 첫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 처음으로 친구와 여행을 떠나는 것에 대한 설렘을 느꼈던 것, 갓 성인이 되어 모든 것이 신나고 들떠 있던 나의 모습이 생생히 떠올랐다. 그러다 문득 "그래, 다시 부산으로 가자,"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때의 감정과 추억을 다시 느끼고, 이번에는 좀 더 성숙한 나 자신으로서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고 싶었다. 나는 무작정 그다음 주에 부산으로 떠나기로 했다. 비행기를 이용하여 김해공항에 도착했을 때 무거운 짐을 들고 버스로 이동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떠올라 KTX를 타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처음으로 홀로 떠나는 여행이어서 그랬을까 계획 없이 떠난 여행이었지만 두려움보단 설렘이 앞섰다.

서울역에서 KTX에 올랐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고요히 잠든 도시의 아침을 담고 있었다. 기차가 출발하자마자,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에게 항상 크고 웅장하기만 했던 건물들이 마치 작은 점들처럼 옹기종기 모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비행기와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다. 도시를 벗어나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시간은 나를 여행 속으로 끌어당기는 듯했다. 아름다운 풍경에 멍하니 바라보다 보니 어느새 부산역에 도착했다.

두 번째 방문하는 부산이었기에 익숙함과 반가움을 느끼는 동시에 혼자 하는 여행이 실감 나서였을까 낯선 감정이 함께 들었다. 택시에 올라타자마자 기사님께서 친근히 말을 걸어 주셨다. 캐리어를 차에 실어 주시며 기사님은 혼자 여행을 온 것을 단번에 알아차리시고는 정겨운 부산 사투리로 내게 말을 걸어 주셨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순식간에 부산의 여러 이야기로 이어졌다. 택시 기사님은 부산 토박이로서, 자기 고향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드러내시며 "저는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줄을 서서까지 그곳을 꼭 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좋은 맛집들이 많은데, 참 아쉬워요."하고 말하셨다. 기사님의 말에 나는 순간 뜨끔했다. 기사님은 소박하지만, 진정한 부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자신의 단골 식당을 추천해 주셨다. 기사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는 그 식당을 꼭 방문해 봐야겠다고 다짐했다. 숙소에 도착해 택시에서 내리며 기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다. 부산 여행의 첫 출발은 기사님의 따뜻한 미소와 정겨운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낯선 여행객에게 따뜻하게 해주시는 기사님 덕분에, 부산이 더욱 정겹게 느껴졌다.

나는 숙소에 짐을 내려놓고, 기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추어탕 가게로 향했다. 평소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을 즐기곤 했지만, 혼자서 추어탕을 먹으러 가본 적은 없었기에 걱정이 되었다. 나의 걱정과는 다르게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정겨운 목소리로 주인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 주셨다. 메뉴를 둘러보니 택시 기사님께서 꼭 먹어보라고 추천해 주신 '전통 추어탕'이 한눈에 들어왔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어쩌다 이렇게 먼 곳까지 식사하러 찾아오게 됐는지에 대해서부터

시작하여 아주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잠시 후, 추어탕이 내 앞에 놓였다. 진한 국물에 부드러운 건더기와 어우러진 밥알의 풍미가 아직도 기억난다. 한마디로 영혼까지 따뜻해지는 맛이였다. 추어탕의 잊을 수 없는 맛 또한 기억에 남지만, 그보다도 나에게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시며 여행을 격려해 주신 아주머니의 정겨운 모습이 가장 기억에 깊이 남아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손님에게도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고 정성스러운 음식을 대접해 주시는 모습에 마치 부산이라는 도시가 나를 반기는 것 같아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다. 그러던 중 자연스레 지난 부산 여행을 떠올렸다.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내가 머릿속에서 대비되며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남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행복한 모습이 과연 여행의 행복에 진정한 의미가 있을까? 진정한 여행 속 행복이란 타인에 의해 종속되거나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발견되는 것이 아닌 나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과정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날의 경험은 지난 과거처럼 단순히 식사의 욕구, 개인적인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인생의 소중한 한 페이지였다.

식사를 마치고 나와 길을 따라 펼쳐지는 바닷길을 산책하며 걷고 있었다. 식사 후 아주머니께서 건네 주신 종이에 쌓인 정겨운 박하사탕을 입에 물고 아무 생각 없이 거리를 걸으며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과 눈 앞에 펼쳐진 바다의 경치에 홀린 듯했다. 하늘과 그 아래 반짝이는 바다, 그 사이를 가르는 바람은 마치 나를 위한 것인 것만 같았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그 풍경을 넋을 놓은 채 바라보았다. 나는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잠시 잊고 있던 평온함을 되찾은 것 같았다. 이제 부산에서 무얼 해야 하나 생각할 틈도 없이 카페 앞에 강아지 한 마리가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평화로워 보였다. 순간 카페에 들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곳은 아기자기한 실내장식과 은은한 커피 향으로 가득한 작은 카페였다. 자그마한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는 아까 산책할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지금 내 앞에 펼쳐진 평화로운 풍경들을 보고는 행복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소한 순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느낀 소소한 행복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거리 공연에서 들었던 곡은 지금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되었고, 갑작스레 내리는 비를 피하고자 들어갔던 남포동의 한 작은 서점에서 우연히 읽은 짧은 시 한 편은 아직도 내게 여운을 남긴다. 하루를 마치고 숙소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다 누군가 터뜨리고 있는 폭죽들은 마치 나를 위해 준비된 것처럼 내 앞에 펼쳐졌다. 여행이란, 어쩌면 이렇게 예상치 못한 순간들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여행을 위해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하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계획에 없던 작은 우연들이 더 큰 기쁨을 주기도 한다. 결국 여행이란, 우리가 걸어가는 길 위에서 만나는 수많은 작은 순간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이야기이다. 앞으로의 여행에서도 나는 이런 우연들을 놓치지 않고,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다짐했다.

아름다운 풍경과 나의 모습을 추억으로 담을 사진을 찍고 그것을 뽐낼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카페,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인기가 많아 아무 때나, 아무나 맛볼 수 없는 어떤 음식점. 여태 내가 부산 여행에서 무엇을 했나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번 부산 여행을 통해 여행에 대한 편견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었다. 이제는 그때의 나는 무얼 보고 무엇

을 느끼고 있었는지,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특정 장소가 아닌 오로지 나를 중심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을 정리해 보곤 한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여행을 떠나라”라는 말에 의문을 품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이 물음에 대해 “여행을 떠날 때 나이가 중요한가? “여행을 위한 여유로운 자금도, 풍부한 지식도, 경험도 없는 내가 여행을 많이 다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조금 더 멋진 사람이 되면 그때 떠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며 끊임없이 여행의 가치에 대해 의심했었다. 그러나 이번 여행을 통해 나는 이것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 거 같다. 생각해 보면 반성할 것투성이인 20살의 부산 여행이었지만, 분명 그 여정을 통해 얻은 것들이 많다. 비록 미성숙한 여행이었을지라도, 그것이 훗날 삶의 거름이 되어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바쁜 삶과 일에 치여 여행의 가치를 의심하거나 여행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 나에게 만족을 주는 여행이던, 그렇지 않던, 언젠간 그것은 반드시 내게 다시 돌아와 큰 깨달음을 줄 것이다. 그러니 여행이 망설여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일단 떠나라.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 선정된 에세이는 자료집으로 제작 가능합니다.